

데스크 시각



김미은 문화1부장

“누가 볼까 무섭다.” 오랜만에 광주 예술의 거리를 찾았다가 든 생각이다. 요즘 예술의 거리를 찾는 일이 잦았다. 4월초 주말엔 ‘나비야 공동 가자’에 들었다. 처음 구경 나온 일행과 함께 이곳저곳 둘러보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2주 전쯤엔 아र्ट타운 갤러리에 둘러 최향 씨의 그림을 감상했다. 강남구 작가가 벽화를 그린 음식점 밀락원에선 모임을 가졌다. 최근엔 새롭게 문을 연 ‘에린 소극장’을 취재했다. 동부 경찰서 앞 캄캄한 0.3평 갤러리 앞을 지날 때면 절로 미소가 지어 지곤 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침체했던 예술의 거리가 조금씩 활기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중앙 초등학교 사거리를 넘어서면 이런 마음이 싹 달아난다. 20세기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서다. 최근 조성된 ‘예술의 거리 조각 거리’는 절망감만을 안겨 준다. 광주시와 동구는 문화전당권 보행환경

‘조각의 거리’ 누가 찾아올까 두렵다

개선사업을 통해 금남로에 설치된 조각 작품 20점 중 18점을 예술의 거리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실, 처음 이전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미 우리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금남로 조각상 20점은 원래 1km 구간에 분산 설치돼 있었다. 반면 예술의 거리로 들어오게 되면 140m 구간에 18점이 설치될 처지였다. 최고 3m가 넘는 조각상이 2~5m 간격으로 놓이게 돼 감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짐작 취급당하는 작품들

실제로 최근 조성된 조각의 거리 모습을 보면 그런 ‘우려’마저도 넘어서었다. 작가 의도나 작품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설치 등 ‘미적 사항’을 문제 삼는 건 오히려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2~5m 간격으로 설치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현실은 작품 간격이 1m가 넘는 곳이 거의 없다. 거리를 보는 순간, ‘금딱지를 덕지덕지 걸친 줄부의 얼굴’이 떠올랐다.

140m 거리에는 18개 조각품 뿐 아니라 대형 안내판을 비롯해 예술의 거리 ‘아트 우물’ 프로젝트로 진행된 4개의 스트리트 아트도 함께 놓여 있다. 여기에 대형 배전함 5개와 벤치 10여 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작 18개 작품이 들어서는 거

리는 길게 잡아도 80m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작품을 ‘몰아넣은 꼴’이 됐다. 김성식, 박병희, 이웅덕 작가 작품은 30c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바글 바글 흥부네 자식들이 따로 없다.

아쉬운 건 작가들의 태도다. 자신들의 작품이 이처럼 짐작 취급당해도 괜찮다는 길까. 초라할 대로 초라해져 버린 작품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백번 양보해 이런 상황이 예술의 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면 그나마 덜 아쉬울 것 같다.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을 품고 있는 문화특구, 문화 1번지를 주장하는 동구, 광주 문화예술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예술의 거리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서글프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추진 단계에서 예술의 거리 반영회 등의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상인들도 ‘이런 모습’을 생각했던 건 아니라고 말한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화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리고 조각품 설치 시물레이션을 거쳐 봤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1980~90년대도 아니고, 핫한 문화 예술이 넘쳐나는 2016년에 이런 형식의 ‘조각의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시가 의도했던 ‘명품 조각거리’는 아닐지라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조각 거리’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전국적인 조동

거리가 될 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전한 한 작가의 말처럼 되레 문화도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청장은 ‘현장’을 한번 보시라

김성환 동구청장은 선거 당시 “조각상이 이전이 출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화특구 동구 이미지에 걸맞게 작품 특성을 살리는 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다른 구정 업무로 바쁘더라도 현장을 꼭 한번 둘러보시라.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예술의 거리에 꼭 조각상이 자리할 필요는 없다. 예술의 거리 특성에 맞는 작품을 선별하거나 거리 곳곳으로 작품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조각의 거리’가 오랜 세월 슬한 논란을 낳고 결국 철거됐던, 바로 예술의 거리에 있었던 ‘루미나리에’ 사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문화전당에 들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유입되고, 구청이 진행 중인 도심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현실화되면 예술의 거리를 찾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터다. 이대로 변하지 않다면 ‘문화도시 광주’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 주는 것일 터이니, “누가 찾아올까 정말 두렵다.”

/mekim@kwangju.co.kr

은편칼럼



한국한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가족이 없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요. 그런 중에 “애, 혼자 뭐하고 있어?” 하며 다정하게 대해주는 아주 친한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언니와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영아원에서 처음 만났는데 고등학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학생들은 “둘이 여러모로 많이 닮았고 행동도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서로 닮았습니다. 가족이 없는 저에게는 언니가 친언니나 다름이 없어서 만날 때마다 행복했으며 ‘저에게도 언니가 한 명 있어요’하며 크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전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요. 무슨 연유로 저를 영아원에 맡

가족이 있음에 행복합니다

긴 건지 알 수 없지만 꼭 만나서 함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망설임이 가 경찰서를 찾아가 가족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마침 그 언니도 이 서비스를 신청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 저는 경찰서로부터 깜짝 놀라온 말을 들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고, 정황을 확인해 본 결과 ... “두 분이 친자매인 것 같습니다. DNA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아주 가난했던 부모님은 언니 태어난 뒤 곧 영아원에 맡겼고, 3년 뒤 태어난 저 또한 큰아버지가 영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제 이름을 ‘박’씨로 기록하여 ‘김’씨인 제 친아버지의 성(姓)과는 달리 저는 ‘박’씨 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이 달라 서로 자매일 것이라 전혀 생각지 못했지요. 마치 소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꿈같은 일을 겪은 뒤 이제 저에게는 가족들, 그리고 늘 옆에서 함께 있어주던 ‘친언니’가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 결국 그들은 작년 3월 10일 이 친자매와 가족들이 20여 년 만에 상봉했다고 한다.

신록의 계절 5월 가족의 달이다. 어린 이년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입양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로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함을 기리고자 정해진 날들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족의 끈끈한 사랑을 그린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이 많이 소개되던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가 서울 지하철역에서 실종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엄마를 부탁해’(2008년)는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지만 무시급 무시했던 엄마의 모습과 사랑을 가족들의 기억을 더듬어 생생하게 되살린 소설이다.

또한 23년 전 MBC TV의 자녀의 성장 스토리를 그린 ‘아빠 어디가’는 자상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뤄 높은 인기로 가족열풍을 몰아왔으며 중국에 프로그램 포맷(format)이 수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우리 시대 아버지를 조명하여 1400여만 명 관람객을 동원한 영화 ‘국제시장’(2014년)도 빼놓을 수 없다. 모두들 따뜻한 가족애를 심도 있게 그려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가족은 기쁨과 슬픔을 항상 공유하기 때문에 기쁨 때나 슬픔 때 가장 먼저 떠올

린다. 가족은 ‘천문지간’으로서 생명의 따뜻한 보금자리이고 누구나 태어나면 속하게 되는 곳으로 모든 행복의 기초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혼율과 노인자살률 OECD의 1위, 가족살해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랑 받고 보호되어야 할 아이를 친부모까지도 열거적 학대와 살해사건들도 빈번하다. 이처럼 가장 평안하고 안전해야 할 가족의 울타리가 파괴되어 가는 소식을 자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은 필자만의 느낌이 아닐 터.

가장 오랫동안, 가장 멀리까지 진심으로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잠언 17 : 1)는 성경구절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본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중국이 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 정부의 개발정책의 초점이 서부내륙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 조용한 내륙부지였던 서부내륙의 도시들이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즉 ‘스판성’의 충칭과 청두 양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청위 경제권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포춘도 ‘포춘 글로벌 포럼’에서 ‘스판성’을 중국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성장엔진으로 지목해왔다.

지난 중국 국민방문 때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서부대개발은 우리 기업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충칭은 시진핑정부가 추진하고 있

광주, 중국 서부내륙으로 눈 돌려야

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직결되는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의 최대 거점도시이다. 금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9%로서, 8분기 연속 중국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며 중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충칭의 발전추세는 충칭화궤(重慶火輪)처럼 뜨겁다”라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극찬처럼, 21세기 중국경제를 선도하는 가장 뜨거운 성장엔진이다.

서부대개발의 또다른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청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3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들어서 있고, IT·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고급세단, 명품 화장품 등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청두의 소비력은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부연안의 내로라하는 도시들 못지않다. 중국의 한 투자자문사가 발표한 중국 도시의 행복지수조사에서 청두가 여타 경쟁도시를 제치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부연안의 전통적인 3대 경제권 주력도시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2선 도시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장 잠재력과 최근의 발전속도

로 비추어 보면, 이들 지역은 분명 광주시에는 새로운 기회의 땅임에 틀림없다. 국내외적으로 경정이 심화되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동부연안보다는 이들 지역이 광주로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인 광주시의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의 추진속도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중국의 디트로이트”를 꿈꾸며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대 생산기지로 떠오른 충칭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와 충분히 교감을 나눌만하다. IT와 문화창의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신용 강자로 떠오른 청두도 마찬가지로 광주와 교류·협력을 위한 공통의 분모가 있다.

몇 년 전부터 중국 전역에 불어 닥친 한류열풍은 서부내륙에도 한류 신드롬을 만들었다. 최근 방한한 푸영린 청두시 부시장은 청두의 35세 이하 청년 400만 명이 K-POP, 드라마 등 한류문화에 열광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가 중국 서부내륙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중국내륙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광주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

중국 교류대상지역을 기존 동부연안 중심에서 스펀성 등 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 및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서부 내륙지역과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스펀성 등 서부내륙 주요 성들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스포츠·인적 교류 등 다양한 우호교류형 사업을 활성화하여, 이들 지역과의 친밀한 ‘관시’를 형성하고 광주가 그들의 ‘하오 펑우(好朋友)’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상호 간의 교류협력의 실적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서부내륙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자·IT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분야에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시장개척 등 경제통합협력을 확대한다.

중국 서부내륙지역 현지에 광주사무소를 개설하고, 각종 투자 유치, 기술 이전, 통상교역 확대 등 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으로 교류·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특히 최근 한류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 중국 현지의 한류바람을 심본 활용하여, 구마력이 막강한 ‘큰 손’ 서부내륙 요우커를 우리 지역으로 집중 유치하도록 한다. 이제 광주는 중국 서부내륙을 주목해야 한다.

社說

광주 전통시장도 대만의 스린 야시장처럼

광주 지역 전통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기존의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고 신나는 문화가 스며들면서부터다. 대인시장을 비롯해 송정역시장과 남광주시장 등 전통시장에는 예술가와 청년 상인이 잇따라 동자를 틀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광주 창조센터와 현대사 그룹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광주의 전통시장은 지역의 상업 공간을 넘어 문화의 장으로 변화를 꾀하게 됐다. 이 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특유의 문화와 사람들의 온기가 살아 있는 전통시장 고유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성공적인 발걸음을 떼었다.

지역 전통시장들은 또한 야(夜)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송정역시장은 각국 라면을 모아 파는 가게 등 개성 넘치는 이색 가게들로 인해 시장에서 사라졌던 젊은이들의 발걸음 되돌리고 있다. 대인시장의 밤

도 환하게 밝혀졌다. 예술 상품을 파는 가게는 이미 명소가 됐으며 여러 매체의 문화예술을 야시장에 접목시켰다.

남광주시장도 먹거리 중심으로 특화에 나섰다. 다문화 음식과 남도 음식을 융합한 아시아 푸드와 남광주 장의 수산물을 이용한 향토 푸드 등 야시장 개설을 통한 색다른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소비자와 관광객이 차분히 머무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상인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말 방문객이 50만 명이 넘는다는 대만의 스린(士林) 야시장은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전통시장 역시 스린 야시장처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살거리·볼거리·먹거리를 비롯해서 길거리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바탕이 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野 ‘호남 쟁기기 경쟁’ 실천으로 이어지길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 간 ‘호남 쟁기기’ 경쟁이 뜨겁다. 4·13 총선에서 호남 1당이 된 국민의당이 확고한 입지 굳히기에 나서자 더민주도 지역 현안 해결을 내세우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이 먼저 선수(先手)를 치고 나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장병완 의원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박지원·박주선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호남권에 시내 면세점 설치를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 등 더민주 지도부는 총선 패배 후 지난달 25일 사과 발언에 이어 1주일 만에 다시 민심을 찾았다. ‘호남 대방론’을 꺼내 민심을 다독이고 경제 현장을 둘러보았다. 전주의 한국 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 총선 공약인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대불산단 입주 기업 대표들을 만

나 당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는 어찌 됐든 지역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지지세를 이어나가는 포석이고, 더민주는 옛 텃밭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쯤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역 현안이 하나둘씩 해결된다면 바람직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만 앞세운 채 흐지부지된다면 호남은 영원히 등을 돌릴 것이다. 여론에 떠밀려 앞뒤 재지 않고 툭 던졌다가 안 되면 말고 식이라면 되레 불신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감당 못할 하언을 남발했다가 결국 표의 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허다하다.

5·18 현안 관철이나 면세점 유치, 대불산단 활성화 등은 현실적으로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두 야당은 약속에 대해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아야 비로소 신뢰가 쌓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대학 시절, 셰익스피어 권위자였던 영문학과의 한 교수가 짧은 외국 여행 기간에 그 나라를 이해하는 간단한 팁을 알려 주었다. 두 가지 키워드였는데 화폐를 잘 살펴보는 것과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해외여행 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환전이니 자연스럽게 화폐를 보면서 그 나라가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의미였다.

그때 이후 화폐에 담긴 인물을 보는 습관이 생겼다. 화폐는 ‘무연의 외교관’이라 불린다. 그만큼 각 나라마다 각별한 의미를 띠어 인물을 선정한 ‘정치의 나라’ 미국

갖고 있는 중남미 화폐에는 유독 운동권 인사들이 많다. 한때 혁명정부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인연으로 쿠바 화폐에 등장하는 체 게바라를 비롯해 멕시코 베네수엘라 화폐는 독립운동가가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지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도록 한 것이 화근이 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대혁명으로 시민군에 쫓기게 된 그는 마부로 변장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지폐 속 얼굴을 알아본 농부의 신고로 체포돼 죽음을 맞았다.

며칠 전 전세계 지폐에 여풍이 불고 있

**화폐 속 인물**

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미국이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예 출신 여성 흑인 인권운동가를 20달러 모델로 선정했고 영국은 여류작가 제인 오스틴을 10파운드 모델로 정했다.

화폐에서만큼은 동양 여성이 서양 여성보다 이름을 먼저 올렸다. 일본이 2004년 여성 작가 히구치 이치요 초상을 올렸고 우리나라는 2009년 5만 원권에 신사임당이 등장했다. 양성 평등 차원이었지만 그만큼 성 불평등이 남아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우편번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지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 회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